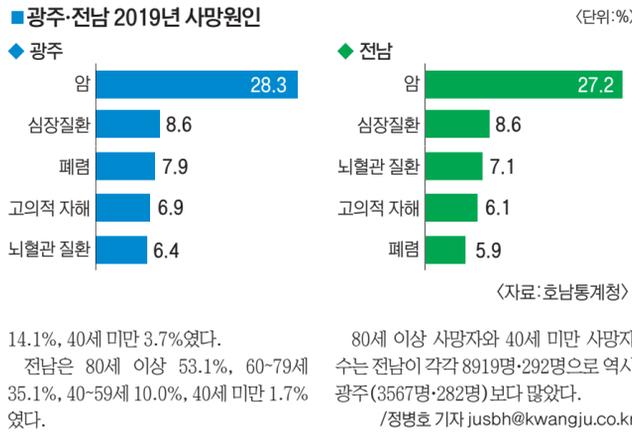


광주·전남 주요 사망원인 암·심장질환

지난해 2만3322명 사망...사망률은 감소
광주 암 28.3%·전남 27.2%...심장질환 8.6%
전남, 기준 인구 대비 사망률 '전국 최고'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악성신생물)과 심장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9년 광주·전남 지역민 사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사망자 수는 총 2만 3322명(광주 7635명·전남 1만6787명)이었다. 이 자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분석된 결과이다.
광주는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1.9% 줄었고, 전남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입했다. 기초자치구별 조사사망률은 고흥, 신안, 보성, 진도, 해남, 장흥 순으로 높았다.
전남의 80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 비율은 전국 평균 연령별 사망 비율(80세 이상 47.0%)보다 높았으며, 광주의 60세 미만 사망 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별 광주지역 구성비는 80세 이상 46.7%, 60~79세 35.5%, 40~59세 14.1%, 40세 미만 3.7%였다.
전남은 80세 이상 53.1%, 60~79세 35.1%, 40~59세 10.0%, 40세 미만 1.7%였다.



80세 이상 사망자와 40세 미만 사망자 수는 전남이 각각 8919명·292명으로 역시 광주(3567명·282명)보다 많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하철에서 보는 팝페라 공연. 광주도시철도공사가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인 파인데이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광주지하철 1호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팝페라 공연 등 소규모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립대 등록금 불균형 해소·지역인재 확보 정책 수립”

조선대 등 영호남 4개 대학 공동 건의문 발표

조선대학교와 동아대학교·영남대학교·원광대학교는 최근 동아대에서 열린 '제 18회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사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영호남지역 4개

거점 대학들은 공동건의안을 통해 지역 사립대학 내실화를 위한 등록금 불균형 해소, 지자체·대학 간 협력 및 상생을 위한 지자체 고등교육 지원 확대, 단순 재정 투자 관련 지표 완화 및 각종 평가 단순화, 지역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을 비롯한 4개 대학 총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이 전체 대학 또는 권역별 평균 등록금 이하인 대학에 한해서는 법 한도 내에서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학별 특성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해당 예산 배정 때 지역별 대학교 수 또는 규모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행정력 손실의 최소화화를 위한 각종 평가 지표 통합 및 단순화, 우수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 재검토 또는 비율 축소, 지역인재가 지방에 남을 수 있는 유인 정책 수립도 당부했다.
한편 영·호남 4개 사립대학은 1998년 12월 최초 협정을 체결한 이후 22년간 교류를 지속하며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해외 취업 연수사업 'K-Move 스쿨' 목포대 5년 연속 선정 '국립대 유일'

목포대학교 일자리센터가 국립대 중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해외 취업 연수사업 'K-Move 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K-Move 스쿨은 정부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현지 전문가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연수 사업이다.
목포대는 '베트남 수출입 전문가 취업연수 과정 5기' 과정에 10명의 연수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대에서 운영하는 K-Move 스쿨 5

기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국내와 베트남에서 ▲직무교육(무역실무, 생산 운영관리, 경영정보관리) ▲어학교육(베트남어, 영어) ▲해외 취업특강 등 총 610시간의 연수 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최동오 목포대 일자리센터장은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 활동 광주학생해양수련원 12월17일까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17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운영한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매년 선정된 학교가 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해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고려해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활동'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수련활동에는 광주지역 22개 학교가 신청했고,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은 이 중 17개 학교를 추점으로 선정했다. 19일 광주 고실종을 시작으로 캠핑과 드론, 심폐소생술, 카프라, 스포츠 스택, 안전매듭 등 6개 프로그램을 학습 선택으로 운영한다.
학교에서 평소 체험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학습 단위로 나눠 진행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교 민주주의 지수' 진단 조사

26일~11월 13일까지

전남교육청이 중점사업인 '자율과 자치의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 민주주의 지수' 진단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란 학교 구성원이 단위학교의 총체적인 교육활동과 장면을 민주주의라는 관점을 통해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단 도구다. 교육 과정과 민주적 학교문화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인 지수로 확인해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학교민주주의를

자체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 영역은 학교문화·학교구조·민주시민교육 실천으로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참가를 신청한 학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200여 곳이며, 오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내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문화예술+인문 '동구형 야간관광' 찾자

광주시 동구 포럼 개최

동구는 관광과 문화예술, 인문이 결합된 관광모형을 모색하기 위한 '2020 문화전당권역 야간관광 활성화 포럼'을 최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 관련단체 및 관

광기업, 상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야간관광 및 스마트관광 국내·외 분석·활용 사례를 통해 문화전당권역에 야간관광 기반 및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신규 여행수요 창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